

##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 : 소득과 사회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 이 은  
(고려대학교)

김 진 영\*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가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고용지위별 우울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과 사회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인구 집단의 우울 연구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CES-D척도의 11개 항목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기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지위는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실업자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집단에 있어서 고용지위에 따라 우울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구소득과 자기존중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그 차이를 상당부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자기존중감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것도 추가적인 이유이다. 상용직보다 자영업자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소득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며 자기존중감에 의해 일정하게 설명되고, 사회적 지지는 설명력이 없다. 상용직보다 실업자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자기존중감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고, 소득으로 일정하게 설명되며, 사회적 지지는 설명력이 매우 적다. 본 연구는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몇 개의 매개변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밝혀냈다는 함의를 갖는다.

주요용어: 고용지위, 우울, 소득, 자기존중감, 사회적 지지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NRF-2010-330-B00141). 본 논문에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자 세분께 감사드린다.

\* 교신저자: 김진영, 고려대학교(jy21kim@gmail.com)

■ 투고일: 2012.1.30    ■ 수정일: 2012.3.8    ■ 게재확정일: 2012.3.20

## I. 서론

우울과 불안은 최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그간 한국사회는 압축적 근대화(compressed modernization)를 겪으면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해왔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자본주의적 발전의 심화에 따른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개인주의 등의 압축적 근대화 양상들이 1997년의 경제위기나 지속적인 장기불황과 같은 사회전방위적 충격과 맞물리면서 변동의 폭과 깊이는 넓고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정신건강에 있어서 상당한 불안정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반적 인구집단의 정신건강을 반영하는 한 대표적인 차원인 우울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우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로 근심, 침울, 실패, 상실, 열등감, 무기력감 및 무가치감 등을 나타내는 정서장애로 인식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울증환자 의료이용 추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우울증 환자의 수는 지난 2004년 54만1000명에서 2007년 67만2545명으로 24.3%나 증가하였다(안이수, 2009). 또한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의 80% 이상이 우울증과 관련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우울증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4; 2011).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오는 2020년에는 질병부담에 있어서 심혈관질환에 이어 우울증이 두 번째로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05년 ‘한국인의 질병부담 보고서’에서도 20대 대표 질병 1순위가 우울증으로 나타났다(배상철, 2005).

그렇다면 이처럼 심각해지고 우울문제는 모든 사회계층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아닌가?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계층 요인 중 고용지위에 주목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지위에 있어 낮은 위치에 있는 실업자나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수가 늘어났고, 그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고용지위는 한국사회의 한 중요 계층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수준의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다. 낮은 고용지위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불이익을 가져오면서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은 서구 선진자본주의국가들에 비해 실업보험과 같은 복지제도가 미비하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전방위적 구조조정

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이 전체 노동력의 절반에 육박하게 되기도 했었는데, 비정규직 노동의 급여 및 처우는 정규직보다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김유선, 2005). 이처럼 사회적 보호가 부족하고 잔여적인 수준의 복지만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고용은 개인의 소득, 생활, 사회활동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며 개인의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고용지위가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다는 점은 이미 기존 연구들도 밝혀왔다(오수성, 2001; 노연희 외, 2004; 박세홍 외, 2009; 홍대균 외, 2009). 그렇다면 고용지위는 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소득, 자기존중감(self-esteem),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라는 세 매개요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고용지위가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이유에 대한 가설적인 설명들은 선행 연구들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 가장 큰 이론적 기여의 지점은 소득과 사회심리적 자원이라는 주요 매개요인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고용지위 간의 우울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점이다.

사회적 지지란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도구적·감정적 지지를 의미한다. 만약 본 연구가 사회적 지지와 자기존중감이 고용지위가 낮은 집단에서 우울수준이 높은 이유를 상당부분 설명한다는 결과를 얻는다면 이는 낮은 고용지위에 위치한 개인들의 우울에 대한 실천적 대응방안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이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작업 역시 고용지위가 낮은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하는 함의가 있다. 본 연구는 주로 실업과 비정규직 고용에만 초점을 맞춰온 기존 연구와 차별적으로 고용지위를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실업자의 네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각 집단 간에 우울수준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차이가 있다면 소득, 자기존중감, 사회적 지지를 매개요인으로 상정하여 고용집단 간 우울의 차이가 각 매개요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고용지위와 우울

고용지위와 우울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실업상태일 경우나 고용지위의 상실을 경험할 경우 우울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해 왔다. 고용지위와 혼인지위의 상실은 우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진영, 2009).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 전국의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업자들의 37%는 불안감, 24%는 우울증, 22%는 적대감을 느끼고 있었다(남찬섭, 1999). 특히 ‘별거·이혼·사별’ 등을 겪은 실업자 10명 중 8명은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된다’는 불안심리상태, 10명 중 4명은 ‘죽고 싶은 기분’이라는 우울증세를 보였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라 할 만한 고용지위의 상실은 혼인지위의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며 심각한 우울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김명언과 곽노연희(1998)는 실업은 고용이 제공해 주는 사회적 지위, 타인과의 접촉 기회, 소비 가능성 등에서의 결핍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고, 이때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곤란 정도에 따라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증상을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오수성(2001) 역시 실업을 경험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실업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결과 이들은 삶의 통제력을 상실한 것에 대해 곤란을 느끼고 있기에 자기존중감을 높여주거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실업자뿐 아니라 비정규직 종사자와 같은 불안정하고 낮은 고용지위에 있는 집단은 고용된 자나 정규직 종사자와 같은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지위에 있는 집단보다 높은 우울수준을 보인다(박세홍 외, 2009). 이러한 우울의 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밝혀졌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심리적 건강수준에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들의 고용 안정성의 차이와 이로부터 기인하는 직무스트레스의 차이와 관계되었다(고상백 외, 2004; 정최경희, 2005; 장귀연, 2010).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우울이나 불안 수준이 높고 자기존중감 수준은 낮다는 점 등도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왔다(노연희 외, 2004).

국외 연구의 경우도 불안정한 고용지위나 실업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해 왔다(Virtanen et al., 2002). 브라질의 경우, 고용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부가혜택 및 사회보험을 보장하는 공식적 직업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비공식적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더 나쁘게 나타났다(Santana et al., 1997). 미국에 대한 연구들도 실업과 비정규직 고용이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했다(Dooley et al., 2000; Quesnel-Vallée et al., 2010). 이처럼 여러 국내의 선행 연구들이 고용과 우울의 관계를 밝혀왔으나 한 제한점은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 분석의 초점이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고용집단을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실업자의 네 집단으로 나눠 각 집단 간 우울의 차이를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자영업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부족분을 본 연구가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일용직처럼 고용지위가 낮은 경우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삶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해지거나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임시·일용직들은 주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고 미래 발전가능성이 불투명하며 사회고용법의 보호가 부족하고 재교육기회도 낮으며 업무자율성이 낮다(이상호, 2005). 따라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제어능력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고용지위에 있어서 중요한 한 집단은 자영업자이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그들 중 상당부분을 영세자영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2009년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8년 현재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31.3%로 OECD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OECD, 2009). 하지만 이들의 상당수가 근로빈곤의 위협에 처해 있고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퇴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확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박찬임, 2005). 직업만족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자영업자들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상용임금근로자에 비해 직업만족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김응규·곽김우영, 2001). 자영업은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구조가 선진화됨에 따라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자영업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절대숫자도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이들이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점을 두고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국내에서 이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영업 종사자들의 특성과 배경이 매우 다양하여 하나로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직업이 불안정하고 소득에 대한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지닌 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낮은 고용지위가 높은 우울수준을 보인다는 점 즉, 그것의 상관관계에 대해 주로 주목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이유들, 즉 매개과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전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주제에 근접한 한 국내연구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우울수준이 높은 이유를 주관적 경제수준과 가족갈등의 차이에 의해 밝히고 있다(김진영·곽송예리아, 2012).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경제수준이 낮고 가족갈등이 더 많은 점이 우울에서의 차이를 상당부분 설명하였다. 다른 선행연구는 핀란드에서 실업과 우울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자기존중감과 경제적 상황(economic situation)의 매개효과를 입증했었다(Kokko & Pulkkinen, 1998). 본 연구는 자기존중감과 소득에 더해 사회적 지지를 추가로 검토하며 실업뿐만이 아닌 다양한 고용지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 2. 고용지위와 소득,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

본 연구는 고용지위와 우울을 매개하는 요인들로 소득,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기존중감을 설정하는데 이 세 요인이 매개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위해서는 고용지위가 이 세 요인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만일 이 세 요인이 고용지위에 인과적으로 선행한다면 이 세 요인은 매개요인이 아니라 고용과 우울의 허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행요인(precursor)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불가피하게 횡단자료를 사용하므로 이러한 인과순서에 대한 정당화는 이론과 논리에 의해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결과 이 세 요인이 고용지위에 인과적으로 선행한다는 주장의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논리적으로도 이 세 요인은 고용지위에 의해 인과적으로 영향을 받는 결과 변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고용 지위에 따라 임금과 소득이 달라지는 것이며, 사회심리적 자원은 고용지위에 비해 덜 안정적인 요인이므로 원인이기 보다는 결과로 간주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고용지위가 이 세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아래와 같다.

우선, 고용과 소득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통제한 후 순임금 격차를 보았을 때 풀타임 노동자에 비해 파트타임 노동자의 임금이 다소 낮고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임시직과 상용직 간의 임금 격차가 컸다(Gustafsson et al., 2003). 국내의 경우, 고용지위에 따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 현실은 고용지위별 급여차이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현저하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2010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결과’ 자료를 보면 연간 경상소득 평균은 전체 3,770만원이고, 상용직은 4,898만원, 임시·일용직은 2,296만원, 자영업자는 4,58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임시·일용직의 소득은 상용직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소득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임시·일용직은 낮은 임금과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상용직보다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홍경준,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의 격차를 설명할 첫 번째 매개요인으로 소득을 고려한다. 고용지위에 따른 소득의 차이는 우울의 차이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이 개인의 자기존중감을 약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Winkelmann & Winkelmann, 1998), 미국을 준거로 실업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Atkinson et al., 1986), 영국을 준거로 고용지위에 따라 사회적 지지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 등이 있었다(Matthews et al., 1999). 이러한 연구들은 고용지위가 사회적 지지와 자기존중감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고용지위와 소득이 사회적 지지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한 한 설명은 사회적 지지가 교환적 성격을 지녔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이은주(200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개인들의 관계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개인들보다 주변인들과 더 진실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통념이 있다.<sup>1)</sup> 그러나 그녀의 연구 결과는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물질적 자산이 가족관계와 가족 외의 대인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경제적 궁핍은 기존에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사회 관계망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실업 혹은 불안정한 고용지위는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어

---

1) 예를 들면, 가난한 집안의 가족들은 궁핍한 생활을 하지만 끈끈한 가족애를 공유하고 있으며 부유한 집안은 비교적 이기적이고 실리적 가족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다는 가정이다.

별거와 이혼으로 이어지고 부모와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인 이유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판 때문에 가족, 친지 모임에 참여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피하며 살고 그 결과 실업자나 고용이 불안정한 이들의 사회적 지지망은 더욱 좁아지고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지위별로 사회적 지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해보고 이것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한 학자에 따르면 자기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은 자신이 성취한 사회적 지위이다(Coopersmith, 1967). 따라서 고용지위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는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낮은 자기존중감은 사회적 비교를 통해 형성되곤 하는데 실업자나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자신의 고용지위가 낮은 것이 자신이 열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낮은 자기존중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우울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 3. 소득,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과 우울

낮은 소득수준, 특히 빈곤 상태는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다(Mirowsky & Ross, 2001). 한국사회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뒤인 1998년에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대해 조사하였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로 지목된 것은 재정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김의철·박영신, 2001). 삶의 여러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우울을 발생시키는 한 중요 요인이다(김승연 외, 2007).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으며 이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상규·곽이병하, 2004; 노병일·곽현근, 2005; 엽태완, 2006; Link et al., 1993; Miech & Shanahan, 2000; Dooley & Prause, 2002).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자기존중감, 통제감 등이 있다(엽태완, 2006; House, 2001). 대표적인 스트레스 이론가 중 한 명인 펄린(Pearlin et al., 1981; Pearlin, 1983)은 만성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사회심리적 자원으로 자기존중감, 통제감 및 사회적 지지를 지목한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이 여러 사회심리적 자원

들 중에서 우울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특히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와 자기존중감(self-esteem)을 지목한다(오수성, 2001; 최수찬·박해웅, 2005; Lin et al., 1999).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가진 대인 관계로부터 얻는 도구적·정서적 지지를 의미하는데 특정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호해 준다(Cohen & Syme, 1985).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삶의 전환기에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Barrera, 1986), 정신적 외로움을 감소시키며, 자기존중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Thoits, 1982). 즉,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 증상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in et al., 1999; Pearlin, 1985). 사회적 지지의 원천은 가족, 친구, 친지, 전문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자기(self)에 대한 존중감은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전반적인 가치감(overall sense of self-worth)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대한 대처를 돕는 중요한 감정적 자원으로 기능한다(Steele, 1988). 낮은 자기존중감은 우울의 시작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Beck et al., 1979), 자기존중감의 상실은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손상시키고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이수인, 2007). 자기존중감은 영구불변하는 특성이 아니라 성공이나 실패 경험, 사회활동 및 인생의 다양한 경험에 따라서 변화되는 일종의 가변적인 심리적 상태이다(Baumeister, 1998). 본 연구는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수준의 차이를 매개해주는 사회심리적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와 자기존중감을 고려하는데, 이러한 자원은 개인적 사회적 개입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가변적인 자원이다.

#### 4. 연구가설

- 가설 1. 상용직과 자영업/임시·일용직/실업자 간의 우울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 가설 2.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는 소득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된다.
- 가설 3.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된다.
- 가설 4.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는 자기존중감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된다.

### Ⅲ. 연구 방법

#### 1. 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2006년도 자료를 이용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지지와 직결된 문항들이 1차년도에만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한국복지실태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비롯한 9개 도의 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종단 조사이다. 본 패널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인 23만 7천여 개 조사구중 517개 조사구를 지역별 조사구 규모에 따라 층화 추출하였다. 이 중 조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최종 7,072가구가 추출되었다. 본 패널의 성격을 반영하여 표본의 50%를 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층에 할당하고,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일반가구를 나머지 50%로 할당하여 저소득층 가구를 과대표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2월 31일을 8기준으로 고용상태를 조사한 1차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한 경제활동인구<sup>2)</sup>를 대상으로 하며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 2. 척도

우울척도는 조사시점에서 지난 1주일간의 심리상태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우울 정도를 4점 척도(극히 드물다 1점에서 대부분 그랬다 4점까지)로 측정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11개 문항은 “식욕이 없다.” “비교적 잘 지냈다.”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잠을 설쳤다.”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

2) 만15세 이상의 인구는 생산활동가능인구로 분류되며 이들 중에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반면 일할능력은 있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을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상태에 따라서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주는 제외한다.

는 것 같았다.” “마음이 슬펐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이다(Radloff, 1977). 이 11개 항목의 신뢰도(Cronbach의 알파)는 .861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울변수는 이 11개 문항의 평균값인데, 일부 문항은 역코딩하여 높을 값일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했다. 우울변수는 분포가 비대칭적이고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나기에 자연로그(log)를 씌워 변형한다.

고용지위의 경우 2005년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기준으로 각 집단의 특성과 우울수준의 유사성에 기반 하여 4개 범주를 구분하는 3개 더미(dummy) 변수로 재구성한다.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실업자의 4개 범주로 구분하며 준거집단은 상용직이다.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된 임금근로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을 뜻하고, 임시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일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또는 매일 고용되어 일당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영업자는 유급종업원 없이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이며, 실업자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구직활동을 한 경우를 뜻한다.

소득은 경상소득을 이용한다. 경상소득은 가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자영업사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혼합소득), 자산으로부터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비영리 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분석을 위해 음의 소득 값은 0값으로 변환한 후 정규분포성을 획득하기 위해 루트(square root)를 씌워 변형하였다.

사회적 지지 개념은 두 개의 차원에서 척도화 된다. 첫 번째 사회적 지지 변수는 가족관계 만족도이다(매우 불만족 1점, 대체로 불만족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두 번째 변수는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친구, 동료 이웃, 교회 등의 신자로부터 지난해 도움을 받은 사람의 수를 측정한다. 이 변수, 즉 지지자의 수는 정규분포성 획득을 위해 루트(square root)를 씌워 변형하였다.

자기존중감 개념에 대한 10개의 문항들은 4점 척도(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

상 그렇다 4점까지)로 측정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실패한 느낌이 든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사랑할 것이 별로 없다.”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내가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가 그것이다. 자기존중감 변수는 이 10개 항목의 평균값이다. 이 10개 항목의 신뢰도(Cronbach의 알파)는 .736으로 높은 수준이다. 일부 문항은 역코딩하여 높을 값일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했다.

연령, 성별, 혼인지위, 교육수준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고용과 우울의 허위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선행변인으로 활용한다. 먼저 성별은 여성을 구분하는 하나의 더미 변수를 이용하고 준거집단은 남성이다. 혼인지위는 원래의 변수를 4범주로 구분하여 사별한 집단, 이혼·별거 상태인 집단, 미혼집단의 3개의 더미 변수로 구성하고 준거집단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집단으로 한다. 교육수준 역시 4범주로 구분하여 무학에서 초등학교 졸업까지의 집단, 중학교 입학에서 중학교 졸업까지의 집단, 고등학교 입학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집단을 각각 한 더미변수로 하며 전문대 입학 이상의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한다.

### 3. 분석방법

SPSS12.0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모형의 점진적 보정(progressive adjustment) 방법을 통해 각 매개변인들이 고용과 우울의 관계를 얼마나 설명, 즉 매개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상용직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다른 세 고용집단 각각과의 우울수준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가 소득과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이라는 매개변인들 각각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밝혀내도록 한다. 점진적 보정은 매개변인들을 인과순서에 따라 차례로 모형에 삽입하면서 인과적으로 선행한 매개변인에 의한 것이 아닌 추가적인 순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다(Mirowsky, 1999). 점진적 보정은 위계적 회귀분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위계적 회귀분석의 일반적 목적이 종속변인에 대한 특정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평가하는데 있는데 반해, 점진적 보정의 목적은 특정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의 역할을 평

가하는데 있다. 이는 경로분석(path analysis)과 동일한 논리인데, 경로분석이 변수들 간의 인과순서를 설정한 후 효과분해를 통해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의 비중을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진적 보정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총 관계가 매개변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평가하는 모형화이다. 따라서 경로분석을 수행해도 결과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점진적 보정이 갖는 장점은 효과분해 혹은 매개효과의 계산 과정이 더 명확하기에 결과 보고를 이해가 쉽도록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이론에 기반해 설정한 변인들의 인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선행변인들 > 고용지위 > 가구소득 > 사회적 지지 > 자기존중감 > 우울. 이러한 인과순서에 따라 매개변인들을 추가 하면서 고용지위와 우울의 최초 관계(총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 각 매개변인의 역할과 그 비중을 평가할 수 있다. 모형 간 비표준화 계수 값의 비교를 위해 비교하는 모형들의 유효 케이스(case) 수를 동일하게 맞춘다(결측치를 모두 제거함). 본 연구는 또한 각 매개요인을 통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소벨(Sobel)테스트를 수행한다. 소벨테스트는 각 매개요인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의 여부는 검증해 주지만,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는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점진적 보정은 총 효과에서 차지하는 매개효과의 비중을 평가할 수 있게 해주기에 매개요인의 실질적인 역할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 IV. 분석결과

### 1.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치

<표 1>은 주요 독립변인 별 매개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제시한다. 주요 매개변수인 소득, 사회적 지지(가족관계 만족도, 지지자의 수), 자기존중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봄으로써 집단별로 매개변인의 값에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우선 분석대상인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성별 비중은 남성이 4,839명, 여성이 2,826명으로 남성의 비중이 높으며 소득, 가족관계 만족도, 지지자의 수, 자기존중감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다음으로 결혼지위에 따른 차이를 보면 기혼자는 소득,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 모든

표 1. 주요 독립변인 별 매개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치(평균과 표준편차)

독립변수	가구소득	가족관계 만족도	지지자의 수	자기존중감	응답자수
<b>성별</b>					
남성(준거집단)	37.44 (24.42)	3.94 (.68)	5.38 (6.95)	3.09 (.39)	4822
여성	37.18 (25.96)	3.86 (.71)	5.38 (6.11)	3.05 (.41)	2806
<b>결혼지위</b>					
기혼(준거집단)	39.51 (25.46)	4.00 (.63)	5.64 (7.04)	3.10 (.39)	5453
사별	18.56 (15.71)	3.48 (.89)	5.18 (5.72)	2.90 (.42)	299
이혼·별거	20.83 (13.56)	3.46 (.91)	5.05 (6.78)	2.88 (.45)	374
미혼	37.23 (23.79)	3.78 (.69)	4.59 (5.08)	3.08 (.39)	1539
<b>고용지위</b>					
상용직(준거집단)	48.35 (26.30)	4.05 (.61)	5.60 (6.80)	3.19 (.37)	3154
임시·일용직	29.52 (18.58)	3.77 (.73)	4.94 (5.97)	2.99 (.39)	2427
자영업자	31.71 (24.47)	3.89 (.70)	5.86 (7.52)	3.06 (.40)	1394
실업자	25.27 (19.34)	3.81 (.77)	4.94 (6.24)	2.91 (.42)	653
<b>교육수준(학력)</b>					
초졸 이하	21.01 (17.12)	3.60 (.81)	4.61 (5.65)	2.92 (.41)	944
중졸	28.19 (19.74)	3.78 (.70)	5.14 (7.82)	2.99 (.40)	839
고졸	34.11 (18.86)	3.92 (.66)	5.21 (6.68)	3.04 (.38)	2801
전문대 이상 (준거집단)	47.91 (28.52)	4.03 (.64)	5.84 (6.53)	3.19 (.38)	3044

주: 가족관계 만족도는 1부터 5까지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존중감은 1부터 4까지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의 단위: 백만원.

항목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균 수준을 나타냈고, 사별, 이혼·별거, 미혼 집단은 항목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지지자의 수는 사별, 이혼·별거,

미혼 순으로 적어진다. 이는 결혼을 한 사람들의 경우 비록 사별이나 이혼을 경험했다 라도 미혼보다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 많기에 지지자의 수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Waite, 1995). 자기존중감은 기혼, 미혼, 사별, 이혼·별거한 사람 순서로 낮아진다.

고용지위에 따라 구분한 네 집단의 응답자수를 살펴보면 상용직이 3,15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임시·일용직이 2,427명, 자영업자가 1,394명, 실업자가 653명이다.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상용직은 소득이 가장 낮은 실업자보다 약 두 배 가량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상용직 다음으로는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순으로 소득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영업과 임시·일용직 간의 소득 격차는 작다. 소득, 가족관계 만족도, 자기존중감에 있어서는 상용직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지지자의 수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과의 접촉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직업상 특성에 기인한다고 추측된다. 실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기존중감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임시·일용직은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서 가장 열악하다. 실업자와 임시·일용직은 지지자의 수에 있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적었는데 표준 편차는 실업자 집단이 다소 크다.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 가족관계 만족도, 지지자의 수, 자기존중감 모두 학력이 높은 순서대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2.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2>는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높은 세 변인(소득,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이며, 고용집단 중 상용직을 준거집단으로 다른 세 고용집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모형 1은 소득을 종속변인으로, 모형 2는 사회적 지지의 한 차원인 가족관계 만족도를, 모형 3은 사회적 지지의 다른 한 차원인 지지자의 수를, 모형 4는 자기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한다. <표 1>의 결과들에서는 허위관계를 만들 수도 있는 선행변인들이 통제되지 않았고,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통계치를 제공한다면, <표 2>에서는 독립변인인 고용지위와 각 종속변인에 인과적으로 선행하면서 두 변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통제변인들이 각 모형에 포함되었다.

모형 1의 결과를 보면, 상용직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실업자에 비해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준거집단인 상용직보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낮고, 그 다음으로

임시·일용직의 소득이 낮는데, 자영업자와의 차이는 크지 않다. 가장 소득이 낮은 것은 예상대로 실업자이다. 모형 2에서 고용집단별 가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상용직에 비해 가장 가족관계 만족도가 떨어지는 집단은 임시·일용직으로 .161만큼 유의미하게 낮다. 다음으로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실업자로 상용직보다 .112만큼 유의미하게 낮다. 임시·일용직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실업자보다도 더 낮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자영업자는 상용직보다 만족도가 .042 낮는데, 이는 .10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소득에서처럼 자영업자는 상용직과 가족관계 만족도에서의 차이가 가장 적다.

모형 3의 결과를 보면, 상용직보다 도구적·정서적 지지자의 수가 더 적은 집단은 임시·일용직과 실업자 집단이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자영업자는 상용직보다 유의미하게 지지자의 수가 더 많음으로서 지지자의 수가 가장 많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모형 4에서 자기존중감의 차이를 보면, 상용직보다 자영업자의 자기존중감이 낮고, 그 다음으로 임시·일용직의 자기존중감이 낮고, 실업자의 자기존중감은 네 집단 중 가장 낮다.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요약하면, 상용직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자원들의 수준에 있어 가장 우세한 집단이며, 자영업자는 상용직보다는 못하지만 상용직과 자원의 수준에서 큰 차이는 없다. 실업자는 소득과 자기존중감 등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집단이며, 임시·일용직은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좋지 않은 집단으로 이들 집단은 고용지위에 있어서 하위 계층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은 고용지위에 인과적으로 선행할 것으로 여겨지는 변수들인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지위를 통제된 상태에서,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소득,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이 어느 정도 매개 혹은 설명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본 분석을 통해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고 만약 고용집단 간에 유의미한 우울의 차이가 있다면 각 매개변인들이 그러한 우울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상용직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다른 세 고용집단과의 우울 차이를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서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4에 대한 지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모형 1에서 성별에 따른 우울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준거집단인 전문대졸업 이상보다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집단의 우울이 유의미하게 높다. 결혼지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보면 준거집단인 기혼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혼의 경우 유의미한 우울의

차이가 없으나 기혼과 사별, 기혼과 이혼·별거 집단의 우울 차이는 유의미하게 기혼의 우울수준이 낮다.

표 2. 고용지위와 소득,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의 관계(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

예측변수	종속변인: 가구소득 <sup>1</sup> 모형 1	종속변인: 가족관계 만족도 모형 2	종속변인: 지지자의 수 <sup>1</sup> 모형 3	종속변인: 자기존중감 모형 4
여성	.412*** (.043)	.026 (.017)	.138*** (.036)	.020* (.010)
연령	.007** (.002)	-.005*** (.001)	.001 (.002)	.001 (.001)
초졸 이하	-1.882*** (.081)	-.285*** (.032)	-.418*** (.068)	-.220*** (.019)
중졸	-1.194*** (.073)	-.162*** (.029)	-.391*** (.061)	-.153*** (.017)
고졸	-.725*** (.046)	-.073*** (.018)	-.226*** (.039)	-.114*** (.011)
사별	-1.147*** (.108)	-.286*** (.043)	.096 (.091)	-.086*** (.025)
이혼·별거	-1.223*** (.091)	-.462*** (.036)	-.046 (.076)	-.153*** (.021)
미혼	-.423*** (.057)	-.340*** (.023)	-.222*** (.048)	-.038** (.013)
임시·일용직	-1.023*** (.049)	-.161*** (.019)	-.023 (.041)	-.125*** (.011)
자영업자	-.929*** (.059)	-.042+ (.024)	.140* (.050)	-.060*** (.014)
실업자	-1.653*** (.074)	-.112*** (.030)	-.055 (.062)	-.218*** (.017)
Constant	6.785*** (.101)	4.366*** (.040)	1.979*** (.084)	3.218*** (.023)
R <sup>2</sup>	.278	.105	.015	.099
N	7628	7462	7604	7452

주: + P<.10 \* P<.05 \*\* P<.01 \*\*\* P<.001 (양측 검정)

1 이 변수는 루트변형 되었음.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보면, 준거집단인 상용직에

비해 나머지 세 집단은 모두 유의미하게 우울수준이 높는데, 회귀계수 값이 자영업자 .055, 임시·일용직 .080, 실업자 .177 순이다. 따라서 상용직과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세 고용집단 간 우울수준의 차이에 대한 가설 1은 지지된다. 이러한 우울의 차이는 모형 2에서 소득이 통제되자 일정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그 감소분만큼 소득이 고용 지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설명함을 의미한다. 즉 그 감소분은 소득의 차이에 발생한 것이다. 고용집단 별 소득에서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정도, 즉 소득을 통한 간접 효과의 비중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감소분이다. 예컨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우울의 차이는 모형 1에서 .080이었는데 모형 2에서 소득을 통제할 때 계수값이 .059로 감소한다. 즉,  $.021(=.080-.059)$ 만큼 우울의 차이가 감소한 것인데 이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우울의 차이가 소득에 의해 약  $26\%(=.021/.080)$  정도 설명됨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에 의한 간접효과 혹은 매개효과의 비중이 총 효과의 26% 정도라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상용직과 자영업자 간 우울의 차이는 모형 1에서 .055였고 모형 2에서 소득을 통제할 때 계수값이 .037로 감소한다. 따라서  $.018(=.055-.037)$ 만큼 감소한 것인데 이는 상용직과 자영업자 간 우울의 차이가 소득에 의해 약  $33\%(=.018/.055)$  설명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상용직과 실업자 간 우울의 차이는 모형 1에서 .177이었고 모형 2에서 .144로 감소했으니 .033 감소한 것인데 이는 약 19%의 감소이다. 상용직과 자영업자 혹은 임시·일용직 간 우울의 차이는 소득의 차이로 상당히 설명되나, 실업자와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게 설명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소득의 부분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2는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모형 3의 결과는 소득이 들어있는 모형 2에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두 변수를 추가적으로 통제된 결과이다. 이는 소득에 기인한 매개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에 의한 매개효과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접근이다. 매개변인들을 인과순서에 따라 차례로 통제하면서 선행한 매개변인에 의한 것이 아닌 추가적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소득이 통제된 모형 2에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우울의 차이는 .059인데, 사회적 지지의 두 변수가 추가된 모형 3에서 그 계수값은 .049로 .010이 감소했다. 이는 소득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적 지지에 의한 순 매개효과의 정도를 보여준다. 소득은 사회적 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 지지의 순 매개효과란 이처럼 소득에 연원된 매개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매개효과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상용직과 자영업자 간의 우울차는 모형 2에서 .037이었는데 사회적 지지가 통

제된 모형 3에서 .039로 오히려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자영업자의 우울이 상용직보다 높은 것은 사회적 지지 때문이 아님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미 <표 2>의 결과에서 예상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상용직보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지지자의 수는 더 많다. 이 두 측면이 상쇄되면 결국 자영업자는 상용직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이 두 집단 간 우울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용직과 실업자 간 우울의 차이는 소득이 통제된 모형 2에서 .144였고 사회적 지지가 추가된 모형 3에서 .140으로 약간 감소한다. 미세한 감소이기에 상용직과 실업자 간 우울의 차이가 사회적 지지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요약하면, 사회적 지지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우울의 차이만 일정하게 설명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3은 일부만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모형 4는 소득과 사회적 지지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자기존중감이 추가된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3에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우울의 차이는 .049인데, 자기존중감 변수가 추가된 모형 4에서 그 계수값은 .025로 .024 만큼 감소했다. 이는 소득이나 사회적 지지에 의한 것이 아닌 자기존중감에 의한 순 매개효과의 정도를 보여준다. 요약적으로 효과를 분해해 보면, 매개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모형 1에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우울의 차이(총효과)는 .080인데, 소득에 의해 .021만큼 설명되고, 사회적 지지에 의해 .010만큼 설명되고, 자기존중감에 의해 .024만큼 설명되어, 이들 세 매개요인이 총 .055 만큼을 설명하며 나머지 직접효과가 모형 4에 나와 있는 계수 .025이다. 모형 1의 .080이 모형 4에서 .025로 줄었으니 총 70%가 감소된 것이고, 이는 이들 세 매개요인에 의한 총 간접효과의 비율이 70%이고 나머지 30%가 설명되지 않은 직접효과임을 의미한다. 세 매개요인 중 자기존중감이 가장 큰 매개효과를 가지며, 다음으로 소득이 자기존중감보다 약간 적은 매개효과를 보이고,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가장 적다. 이 세 매개요인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우울 차이의 70%를 설명하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명한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 설명되지 못하고 남은 부분 30%도 여전히 유의미하기에 향후 연구에서 다른 요인이 더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3.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 : 매개요인들의 영향 검토(비표준화 계수와 표준오차)

예측변수	종속변인: 우울 <sup>1</sup>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여성	.027*** (.007)	.035*** (.007)	.039*** (.007)	.040*** (.006)
연령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초졸 이하	.122*** (.013)	.084*** (.013)	.063*** (.013)	.022 + (.012)
중졸	.068*** (.012)	.044*** (.012)	.032** (.012)	.003 (.011)
고졸	.031*** (.007)	.017* (.007)	.012 (.007)	-.013* (.007)
사별	.110*** (.017)	.086*** (.017)	.065*** (.017)	.055*** (.016)
이혼·별거	.165*** (.015)	.140*** (.015)	.103*** (.014)	.083*** (.013)
미혼	-.002 (.009)	-.011 (.009)	-.039*** (.009)	-.034*** (.008)
임시·일용직 <sup>2</sup>	.080*** (.008)	.059*** (.008)	.049*** (.008)	.025*** (.007)
자영업자 <sup>2</sup>	.055*** (.010)	.037*** (.010)	.039*** (.009)	.027** (.009)
실업자 <sup>2</sup>	.177*** (.012)	.144*** (.012)	.140*** (.012)	.093*** (.011)
가구소득 <sup>3</sup>		-.020*** (.002)	-.017*** (.002)	-.012*** (.002)
가족관계 만족도			-.085*** (.005)	-.049*** (.004)
지지자의 수 <sup>3</sup>			-.009*** (.002)	-.003 (.002)
자기존중감				-.279*** (.008)
Constant	.203*** (.016)	.341*** (.020)	.703*** (.028)	1.408*** (.032)
R <sup>2</sup>	.111	.125	.165	.296

주: 표본크기 7,440.

1 이 변수는 로그변형 되었음.

2 준거집단은 상용직.

3 이 변수는 루트변형 되었음.

+ P<.10 \* P<.05 \*\* P<.01 \*\*\* P<.001 (양측 검정)

모형 3에서 상용직과 자영업자 간의 우울차이는 .039였고, 모형 4에서 .027로 감소했기에 .012가 감소한 것이다. 위에서와 같은 절차로 총효과를 분해해 보면, 모형 1에서 상용직과 자영업자 간의 우울차이는 .055였는데, 소득에 의한 감소분이 .018이고,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는 오히려 .002 증가했고, 자기존중감에 의한 감소분이 .012로 세 매개요인에 의한 총 감소분은 .028(=.055-.027)인데 이를 %로 계산하면 약 51%의 감소이다. 이는 이들 매개변인들이 상용직과 자영업자 간의 우울차이의 약 51%를 설명하며 49%는 설명되지 못하고 남은 직접효과임을 의미한다. 여전히 상용직과 자영업자 간의 우울차이가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유의미하게 남아 있으나 본 연구의 매개요인들로 절반 이상 설명되었고, 소득이 가장 매개효과가 크며 자기존중감이 그 다음이고, 사회적 지지는 설명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 상용직과 실업자 간의 우울차이는 .140이었고, 모형 4에서 .093으로 감소했기에 .047 만큼 감소한 것이다. 모형 1에서 상용직과 실업자 간의 우울차이는 .177이었고, 이 중 소득에 의한 감소분이 .033이고, 사회적 지지로 인한 감소분이 .004이고, 자기존중감에 의한 감소분이 .047로 총 .084(=.177-.093)가 간접효과의 부분인데, %로 계산하면 약 48%이다. 나머지 52%는 설명되지 못한 직접효과의 비율이다. 본 연구가 고려한 세 매개요인이 상용직과 실업자 간 우울차이의 절반 정도를 설명하는데, 이 중 자기존중감에 의한 매개효과가 가장 크고, 소득이 그 다음이며,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는 미미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자기존중감의 부분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4는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우울의 차이는 세 매개요인 모두에 의해 일정하게 설명되는데, 설명력은 자기존중감, 소득, 사회적 지지의 순서이다. 즉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자기존중감과 소득이 낮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은 것도 추가적인 이유이다. 상용직과 자영업자 간 우울의 차이는 소득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며 자기존중감이 그 다음이고, 사회적 지지는 설명력이 없다. 상용직과 실업자 간의 우울차이는 자기존중감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되고, 소득이 그 다음이며, 사회적 지지는 설명력이 거의 없다.

<표 4>는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관계들에서의 매개효과 혹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소벨(Sobel)테스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소벨 테스트 통계치는 네 개의 값을 이용해 계산되는데, 관심 있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사이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값과 표준오차 값, 그리고 매개변인과 종속

변인 사이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값과 표준오차 값이 그것이다. 예컨대, <표 4>의 첫 줄에 있는 임시·일용직과 상용직 간 우울의 차이에 대한 가구소득의 매개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소벨 테스트 통계치는 <표 2>와 <표 3>에 있는 해당 회귀계수와 표준오차 값들을 이용해 계산된 것이다. 즉 <표 2>의 모형 1에 있는 임시·일용직 변수의 가구소득에 대한 회귀계수 값과 표준오차 값, 그리고 <표 3>의 모형 2에 있는 가구소득 변수의 우울에 대한 회귀계수 값과 표준오차 값으로 계산된 통계치가 9.019이다. 이 통계치는 유의미하며, 이는 소득 변수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지지자의 수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매개변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한다.

표 4. 주요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소벨 테스트)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Sobel Test Statistic	p
임시·일용직 (준거: 상용직)	가구소득	우울	9.019	***
	가족관계 만족도		7.584	***
	지지자의 수		0.557	
	자기존중감		10.805	***
자영업자 (준거: 상용직)	가구소득	우울	8.441	***
	가족관계 만족도		1.741	+
	지지자의 수		-2.377	*
	자기존중감		4.254	***
실업자 (준거: 상용직)	가구소득	우울	9.127	***
	가족관계 만족도		3.646	***
	지지자의 수		0.870	
	자기존중감		12.036	***

주: + P<.10 \* P<.05 \*\* P<.01 \*\*\* P<.001 (양측 검정)

## V. 결론 및 토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용지위별로 우울의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 차이가 매개변인인 소득과 자기존중감에 의해 일부 설명될 것이라는 가설 1, 가설 2, 가설 4는 지지

되었으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3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우울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만 일부 기여하였다. 자기존중감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우울의 차이와 상용직과 실업자 간 우울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요인이었다. 이는 임시·일용직이나 실업자가 낮은 자기존중감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함의한다. 실업자가 낮은 자기존중감으로 우울을 겪고 있을 가능성은 예상할 수 있었으나 임시·일용직도 그러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로 여겨진다. 임시·일용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그들의 자기존중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소득은 상용직과 자영업자 간의 우울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대체로 영세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함의한다. 자영업자들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상황은 상용직보다 더 높은 그들의 우울수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각 매개요인의 역할과 비중은 고용집단에 따라 차별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집단 간 정신건강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의 실천적 개입에 있어 보다 초점에 두어야 할 요인이 고용집단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위에서 확인했듯이 자기존중감은 낮은 고용지위에 있는 이들의 높은 우울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다. 즉, 고용지위가 낮다고 괘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스스로 위축되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태도는 우울을 초래할 수 있다. 소득 역시 낮은 고용지위에 있는 이들의 높은 우울수준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었는데, 적은 소득은 경제적인 곤란을 가져오거나 그러한 곤란이 초래될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와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기개념(self-concept)에까지 총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우울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예측가능한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상용직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정신건강에서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업은 강력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어 가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소득을 통해서 발생한다. 즉 실업은 소득의 감소를 가져와 가족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우울을 초래한다. 실업상태라도 소득이 보장된다면 가족관계는 그리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표 1>의 결과에서 임시·일용직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모든 고용집단 중 가장 낮다. 또한 임시·일용직은 정서적·도구적 지지자의 수에 있어서도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이

는 사회적 지지가 교환적 성격을 지녔다는 이은주(2003)의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가족, 친지, 친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에 그들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지지와 자원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 있어서 한 가지 한계점은 사회적 지지의 측정에 있어 척도가 제한적이었던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 잘 부합하는 척도는 지지자의 수인데, 이 척도는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친구, 동료 이웃, 교회 등의 신자로부터 지난해 도움을 받은 사람의 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척도의 한계는 사회적 지지의 양적인 측면만을 조사한다는 점과 생계를 달리하는 친지만 고려하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족관계 만족도 변수를 사회적 지지의 대리(proxy) 척도로 간주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에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정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의 질적인 측면을 조사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 만족도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관계의 질을 나타낸다. 예컨대,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라는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부정적인 측면까지 포괄하여 관계의 질을 평가하게 하는 척도라 볼 수 있다.

임시·일용직이 상용직 보다 우울수준이 높은 것은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수도 있고, 동시에 임시·일용직의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가족 갈등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직접적 척도를 이용한 다른 한 연구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높은 우울수준을 보이는 것은 가족갈등의 차이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되었다(김진영·곽송예리아, 2012). 임시·일용직 혹은 비정규직의 삶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낮은 자기존중감이라는 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가족갈등과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까지 중첩되어 있는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한 한 가지 한계는 횡단자료를 사용하기에 변인들 간의 인과순서를 완벽히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인과 순서는 고용지위와 매개변인들 간의 인과순서이다. 본 연구가 소득,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변인들이 인과적으로 고용지위에 선행하기 보다는 후행한다는 이론적 논리적 근거 때문이다.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확인했듯이 고용지위가 원인이 되어 소득과 사회심리적 자원이 결과 지위지는 인과관계는 그 반대의 인과관계,

즉 소득과 사회심리적 자원이 원인이 되어 고용지위가 결정되는 방향으로의 인과관계보다 명백히 더 우세하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논리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매개변인을 설정하였으나 횡단자료의 특성상 이러한 인과 방향의 타당성이 완벽히 보장될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연구 모형의 한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단모형에서는 매개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단점이 있고, 본 연구가 사용하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경우 사회적 지지 변수가 1차년도 밖에 조사되지 않았기에 종단연구 자체가 불가능했다. 앞서 언급된 인과순서를 보장하기 위해선 1차년도의 고용지위 변수와 나중년도의 매개변수를 활용한 모형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우울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 차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소득과 사회심리적 요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 영역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실업자나 비정규직의 열악한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본 연구는 자영업자까지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가장 큰 이론적 함의는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몇 개의 매개변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다.

개인의 정신건강은 개인이 처한 사회적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를 반영하듯 사회경제적인 지표가 악화되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률이나 우울증 발병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Catalano & Dooley, 1977; Catalano et al., 1981).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자체는 극복했지만 고용구조의 질적 저하라는 지속적 문제를 안게 되었다. 즉, 임시직·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실업의 위기는 상시화 되고 불안정 고용이 일상화 되었지만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공적부조 수급권을 확대하여 기초보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양재진, 2005). 특히 고용보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고용보험은 소득대체율이 낮고 사각지대가 넓기에 수급 범위가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가경정 예산안 쟁점분석은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의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취업자의 58.8%가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었다. 실업급여에 있어서도 한국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

물이나 임금대체를 모두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보다 비정규직, 임시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수준이기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용지위상실이 빈곤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는 장치와 빈곤층 추락으로의 불안감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실업자나 비정규직의 낮은 소득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상용직과의 우울 격차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사회적 과제로 보인다.

본 연구는 소득과 함께 자기존중감 역시 상용직과 낮은 고용지위 집단 간의 우울 격차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실업자뿐 아니라 비정규직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존중감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우울의 차이로 귀결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실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손상을 입을 시 이를 치유할 수 있게 돕는 상담센터 등이 지방정부나 기업에 의해 제공된다면 그들의 우울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실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고숙련 노동력으로서의 재교육 프로그램들이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능하다는 사회적 편견의 희생양이 되거나 사회적 관계 등에서 무시당하는 차별의 경험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인식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이은은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의료사회학, 사회정책학, 사회복지학, 정치사회학 등이다.

(E-mail: forwhat1024@hanmail.net)

김진영은 미국 텍사스오스틴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의료사회학, 생애과정연구, 양적방법론, 인구학 등이다.

(E-mail: jy21kim@gmail.com)

## 참고문헌

---

- 고상백, 손미아, 공정옥, 이철갑, 장세진(2004).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대한산업의학회지, 16(1), pp.102-113.
- 김명언, 노연희(1998). 실직자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화 반응 및 대처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pp.115-137.
- 김승연, 고선규, 권정혜(2007). 노인 집단에서 배우자의 사별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pp.573-596.
- 김유선(2005).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서울: 후마니타스.
- 김응규, 김우영(2001).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비교분석. 중소기업연구, 23(3), pp.29-54.
- 김의철, 박영신(2001). IMF시대 한국 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pp.77-105.
- 김진영(2009). 한국 성인 집단에서 연령과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6, pp.87-113.
- 김진영, 송예리아(2012) 고용형태와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대인갈등의 차이와 심리적 안녕. 한국사회학, 46(1), pp.101-129.
- 남찬섭(1999). 1998년 전국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 요약. 월간복지동향, 7, pp.48-50.
- 노병일, 곽현근(2005). 동네의 맥락적 특성이 주민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사회과학, 17, pp.5-31.
- 노연희, 김명언, 장재윤, 김민수(2004). 고용상태에 따른 심리적 안녕의 변화에 관한 집단 연구: 성취프로그램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7(1), pp.19-40.
- 박상규, 이병하(2004).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pp.813-824.
- 박세홍, 김창엽, 신영진(2009). 고용상태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우울증세를 중심으로. 상황과복지, 27, pp.79-120.

- 박찬입(2005). 복지국가의 고민: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국제노동브리프, 3(4), pp.1-3.
- 배상철(2005). 한국인의 질병부담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4). 자살예방대책 5개년계획. 서울: 보건복지부.
- \_\_\_\_\_ (2011). OECD Health Data.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이수(2009). 2004-2008 우울증 환자 의료이용 추이 분석. HIRA(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3(4), pp.56-62.
- 양재진(2005). 빈곤과 소득격차의 고착화 방지를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연세행정논총, 28, pp.79-102.
- 엄태완(2006). 저소득층의 우울증에 대한 무망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1), pp.59-85.
- 오수성(2001). 국제금융위기 후 실직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스트레스 대처양식, 자기 존중감,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pp.481-496.
- 이상호(2005). 교육훈련 기회와 노동시장 성과. 노동리뷰, 8, pp.61-74.
- 이수인(2007). 한부모의 과거 부부관계의 질, 자녀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41(4), pp.128-163.
- 이은주(2003). 실직자들의 인지된 사회적 지지와 정서적 만족감. 사회이론, 24, pp.301-455.
- 장귀연(2010).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서울: 책세상.
- 정최경희(2005). 노동의 불안정은 건강을 잠식한다. 영세기업·비정규노동자들의 위태로운 건강실태. 노동사회, 97, pp.89-96.
- 최수찬, 박해웅(2005). 근로자의 사회정서적 문제가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pp.177-196.
- 통계청(2010).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결과. 대전: 통계청.
- 한국복지패널(2006).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서울: 보건복지부.
- 홍정준(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pp.119-142.
- 홍대균, 김정원, 강동묵(2009). 구조적 실업이 건강관련행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한산업의학회지, 21(4), pp.346-353.

- Atkinson, T., Liem, R., Liem, J.(1986). The Social Costs of Unemployment: Implications for Social Suppor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4), pp.317-331.
- Barrera, M.(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4), pp.413-445. doi: 10.1007/BF00922627.
- Baumeister, R. F.(1998). The Self. in Gilbert, D. T., Fiske, S. T. and Lindzey, G.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McGraw-Hill. 1, pp.680-740.
- Beck, A. T., Rush, J., Shaw, F., Emery, G.(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The Guilford Press.
- Catalano, R., Dooley, D.(1977). Economic Predictors of Depressed Mood and Stressful Life Events in a Metropolitan Commun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8(3), pp.292-307.
- Catalano, R., Dooley, D., Jackson, R.(1981). Economic Predictors of Admissions to Mental Health Facilities in a Nonmetropolitan Commun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3), pp.284-297.
- Cohen, S., Syme, S. L.(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Academic Press.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Freeman & Co.
- Dooley, D., Prause, J., Ham-Rowbottom, K. A.(2000). Underemployment and Depression: Longitudinal Relationship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4), pp.421-436.
- Dooley, D., Prause, J.(2002). Mental Health and Welfare Transitions: Depression and Alcohol Abuse and AFDC Wom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6), pp.787-813. doi:10.1023/A:1020253002468.
- Gustafsson, S., Kenjoh, E., Wetzels, C.(2003). Employment Choices and Pay Differentials between Nonstandard and Standard Work in Britain,

- Germany, the Netherlands, and Sweden. pp.215-266. in S. Houseman and M. Osawa (eds.). *Nonstandard Work in Developed Economies*. Kalamazoo, Michigan: W. 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House, J. S.(2001). Understanding Social Factors and Inequalities in Health: 20th Century Progress and 21st Century Prospec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2), pp.125-142.
- Kokko, K., Pulkkinen, L.(1998). Unemploy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Mediator Effect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5(4), pp.205-217.
- Lin, N., Ye, X., Ensel, M.(1999). Social Support and Depressed Mood: A Structur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4), pp.344-359.
- Link, B. G., Lennon, M. C., Dohrenwend, B. P.(1993).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on: The Role of Occupations Involving Direction, Control, and Planning.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6), pp.1351-1387.
- Matthews, S., Stansfeld, S., Power, C.(1999). Social Support at Age 33: the Influence of Gender, Employment Status and Social Class. *Social Science & Medicine*, 49(1), pp.133-142. doi: 10.1016/S0277-9536(99).
- Miech, R. A., Shanahan, M. J.(2000).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on Over the Life Cour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2), pp.162-176.
- Mirowsky, J.(1999). Analyzing Associations between Mental Health and Social Circumstances. pp.105-123 in Carol S. Aneshensel and J. Phelan(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Mental Health*.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 Mirowsky, J., Ross. C. E.(2001). Age and the Effect of Economic Hardship on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2), pp.132-150.
- OECD.(2009). *Labour Force Statistics*. Paris: OECD. doi:10.1787/lfs-2009-en-fr.
- Pearlin, L. I., Lieberman, A., Menaghan, G., Mullan. J.(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4), pp.337-356.

- Pearlin, L. I.(1983). Role Strains and Personal Stress. in Howard B. Kaplan (Ed.), *Psychosocial stres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85). Social Structure and Processes of Social Support. in Sheldon Cohen and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Orlando. FL: Academic Press. pp.43-60.
- Quesnel-Vallée, A., DeHaney, D., Ciampi A.(2010). Temporary Work and Depressive Symptoms: A Propensity Score 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70(12), pp.1982-1987. doi: 10.1016/j.socscimed.2010.02.008.
- Radloff, L.(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pp.385-401. doi: 10.1177/014662167700100306.
- Santana, V., Loomis, D., Newman, B., Harlow, S.(1997). Informal Jobs: Another Occupational Hazard for Women's Mental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26(6), pp.1236-1242.
- Steele, C. M.(1988). The Psychology of Self-Affirmation: Sustaining the Integrity of the Self. in Berkowitz, L.(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Thoits, P. A.(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2), pp.145-159.
- Virtanen, P., Vahtera, J., Kivimaki, M., Pentti, J., Ferrie, J.(2002). Employment Security and Health.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8(8), pp.569-574.
- Waite, L.(1995). Does Marriage Matter?. *Demography*, 32(4), pp.483-507. doi: 10.2307/2061670.
- Winkelmann, L., Winkelmann, R.(1998).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65(257), pp.1-15. doi:10.1111/1468-0335.00111.

#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 Mediating Effects through Income and Psychosocial Factors

**Song, Eeheun**  
(Korea University)

**Kim, Jinyoung**  
(Korea University)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among the labor force in South Korea. Furthermore, we examined the mediating roles of income and psychosocial factors in the association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We used data from the first year (2006) survey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The survey includes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s and the items which measure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We classified employment status into four categories: permanent workers, temporary workers, the self-employed and the unemploy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employment statu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depression and showed that the lower levels of self-esteem and income among temporary workers were the two main factors which accounted for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m,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The lower level of social support among temporary workers also con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depression.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 self-employed,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was substantially explained by income and self-esteem.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 unemployed, compared to permanent workers, was substantially explained by self-esteem and income. This study elucidated the mechanisms tha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atus and depression.

---

**Keywords:** Employment Status, Depression, Income, Self-esteem, Social Support